

지은이 김민서

길고양이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담장에 누워 세상을 굽어보는 상상으로 삽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일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신이 납니다.

엄마로서 아이들이 ‘행복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바람,

같아도 좋고 아니라도 좋습니다.



연필 놀이

초판 1쇄 | 2022년 9월 21일

지은이 | 김민서

제작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발행인 | 이현숙

펴낸이 | 최문성

펴낸곳 | 도서출판 달구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4안길 28, 1층 (범물동)

Tel) 070.4175.7470 Fax) 0504.199.0257

Email) dalgubook21@naver.com

Homepage) www.dalgubook.com

출판등록 | 제2022-0000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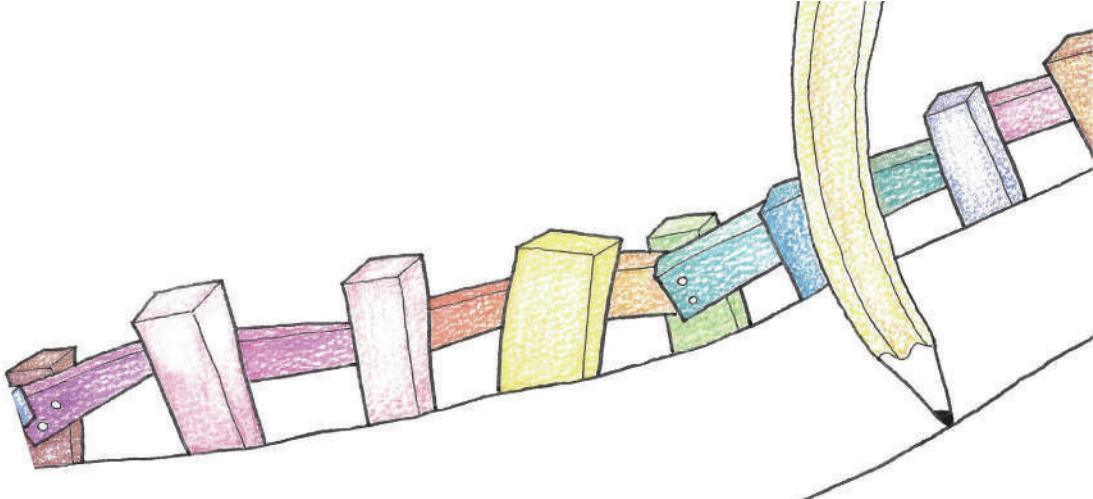
© 2022, 김민서

ISBN 979-11-90458-10-8 (77810) (비매품)

본 도서는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1관 1단] 사업’의 후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달구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편집
□ 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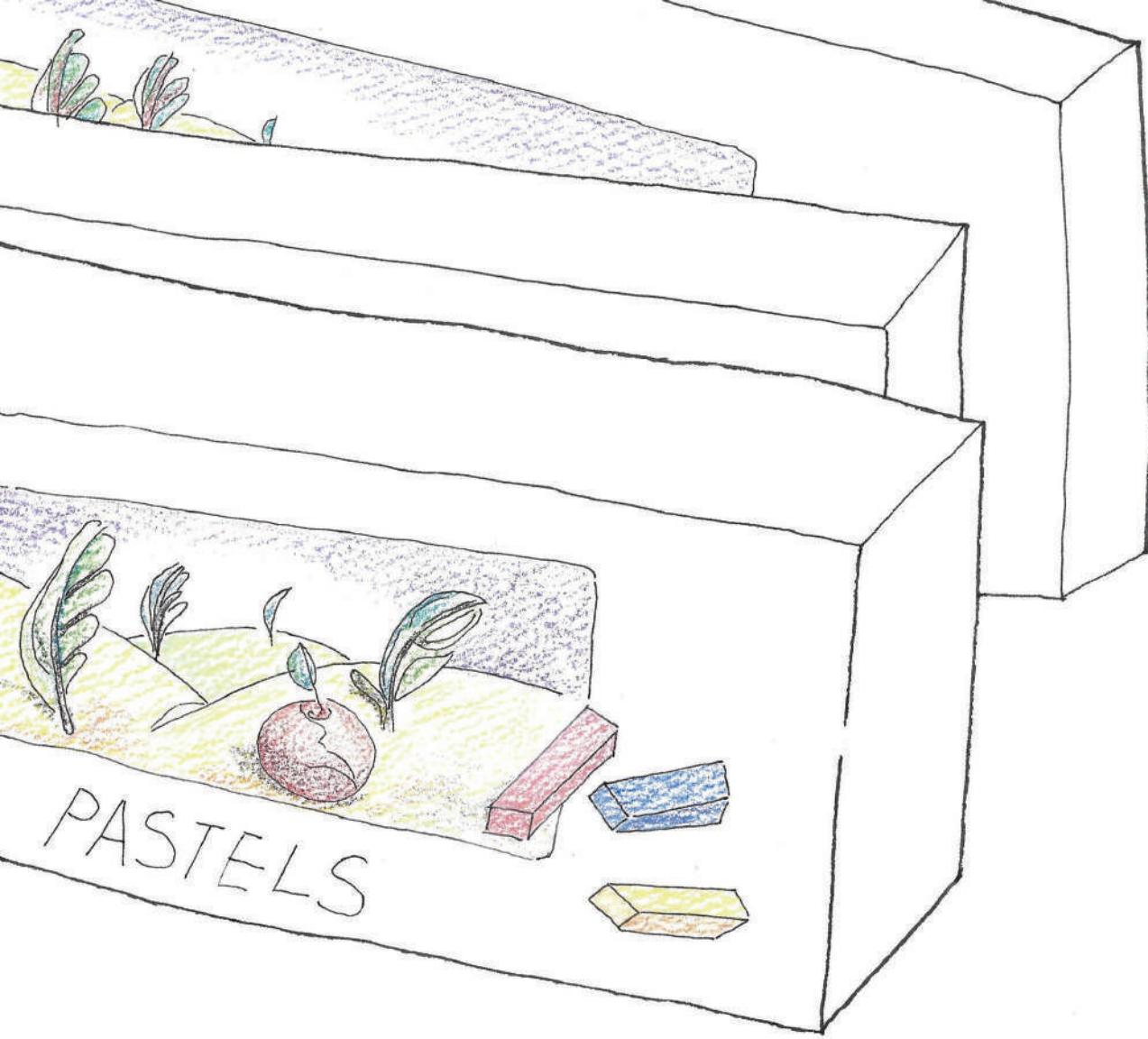
글 · 그림 김민서

D
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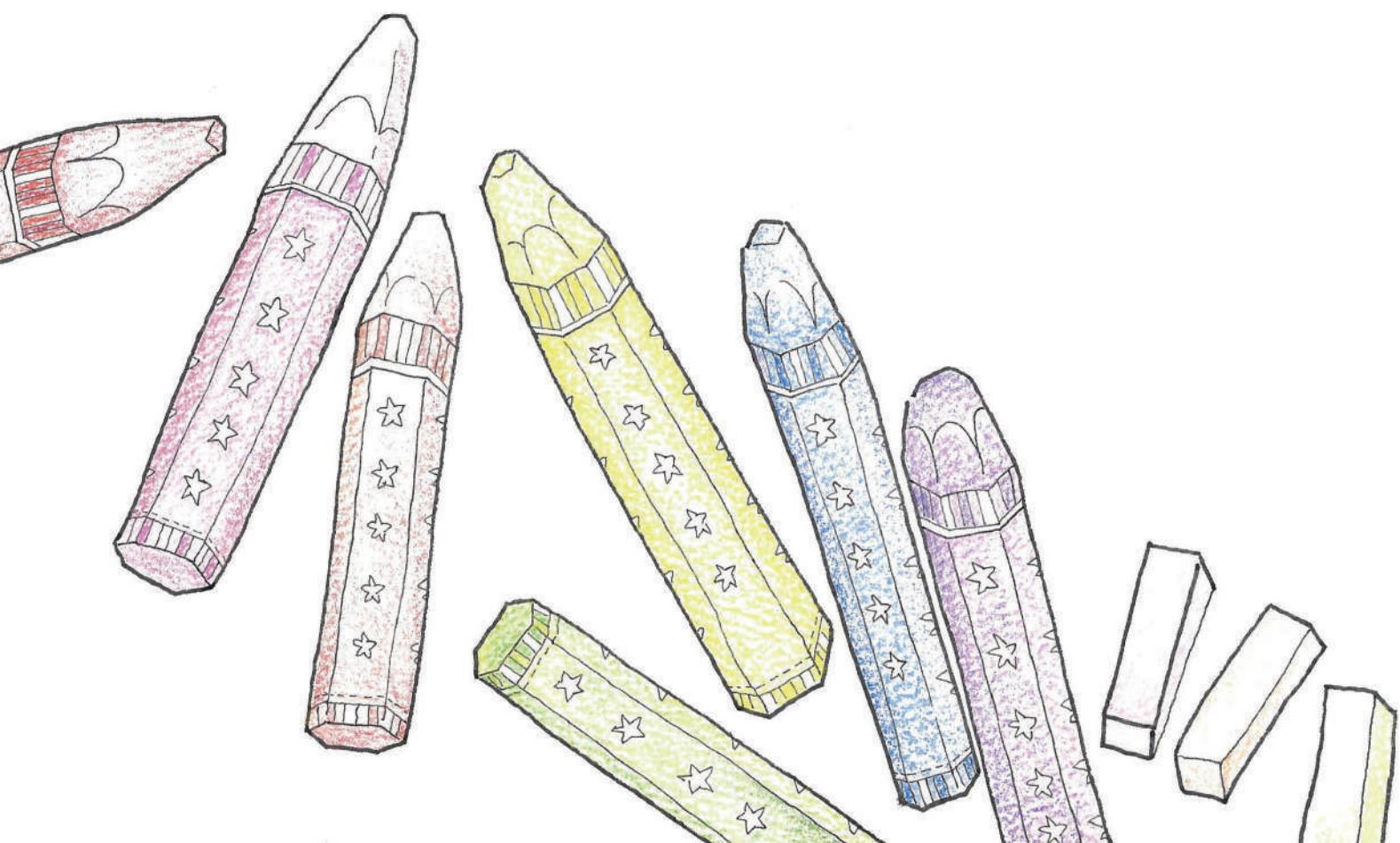
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파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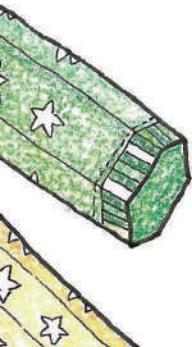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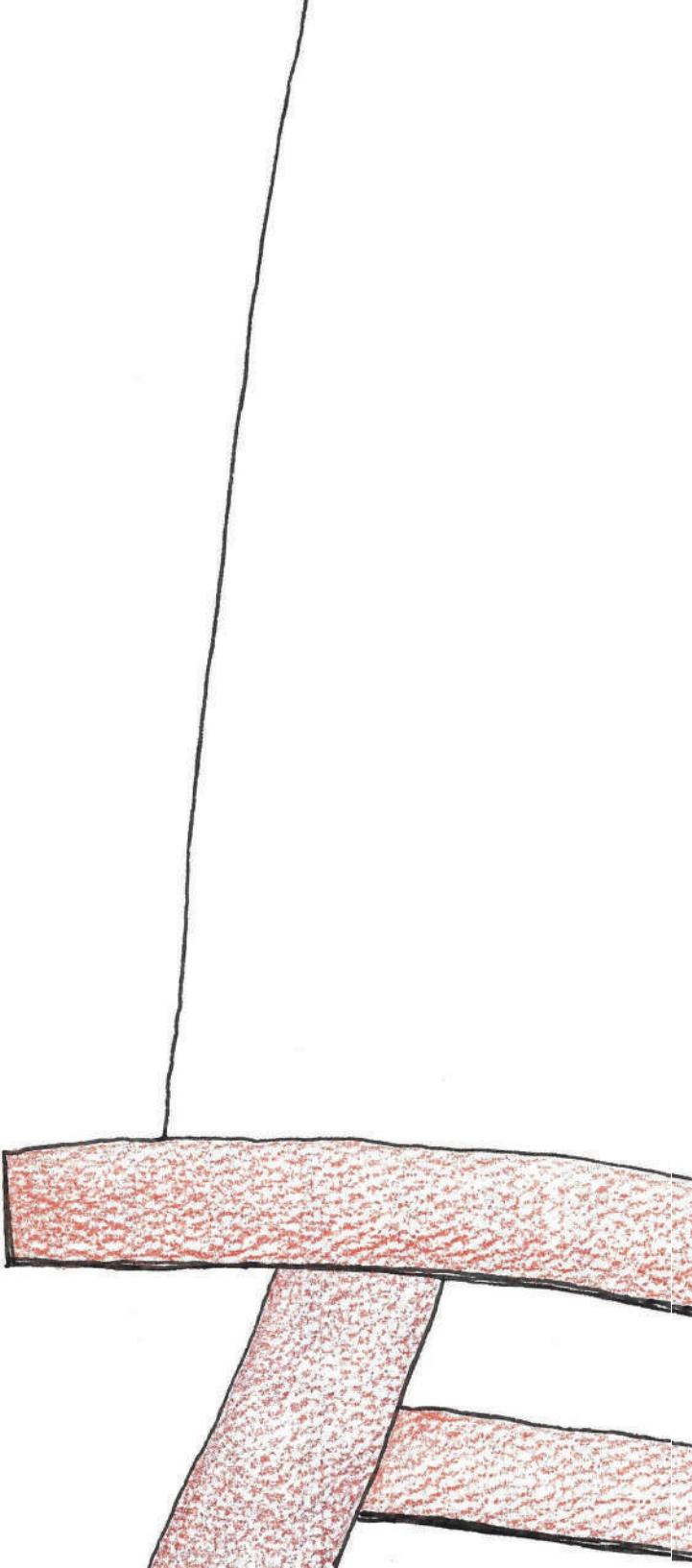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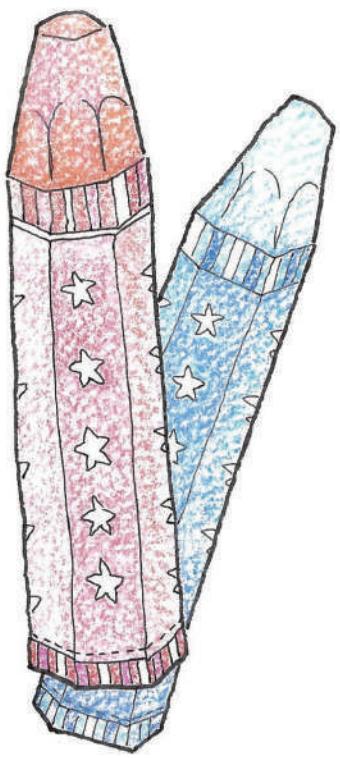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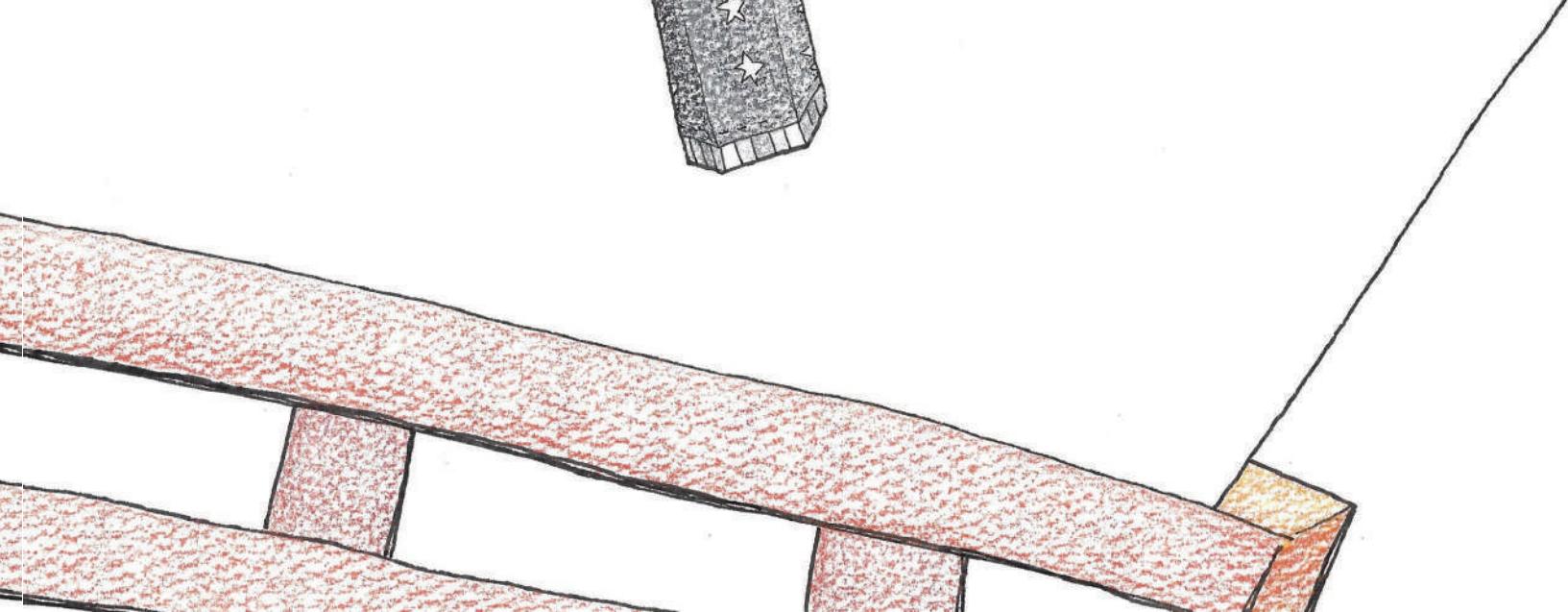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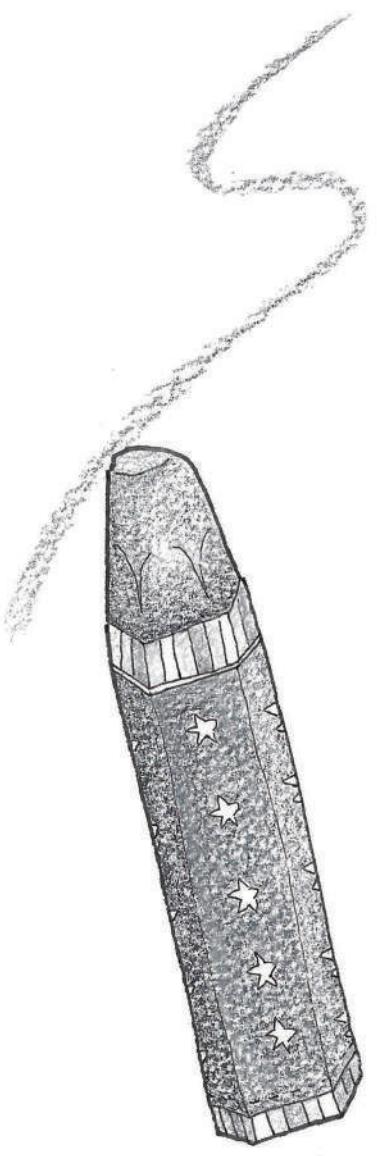
24색 코리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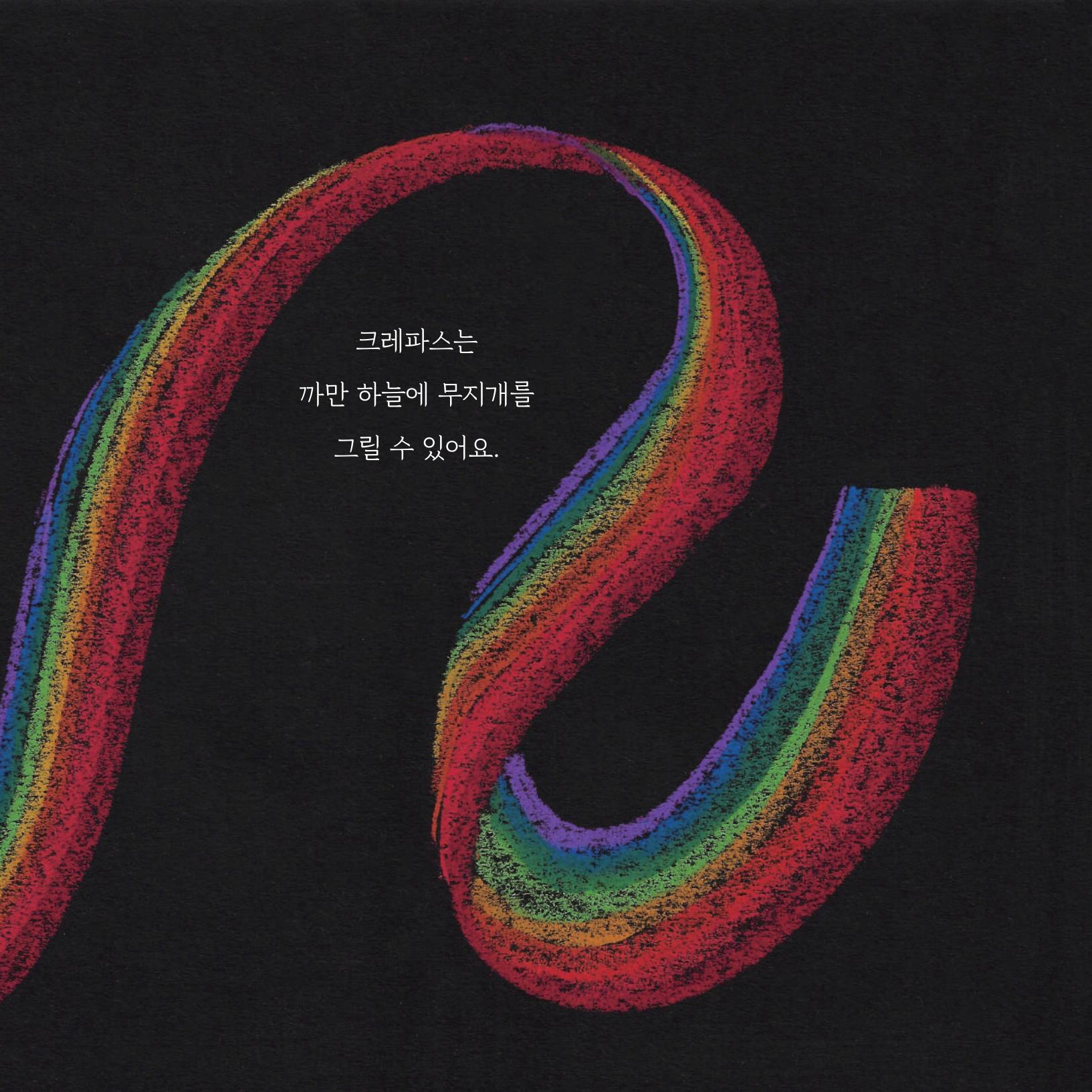
우리는 문구점에 모여 살아요.











크레파스는
까만 하늘에 무지개를
그릴 수 있어요.



사인펜도
내리는 빗방울에 무지개를
그릴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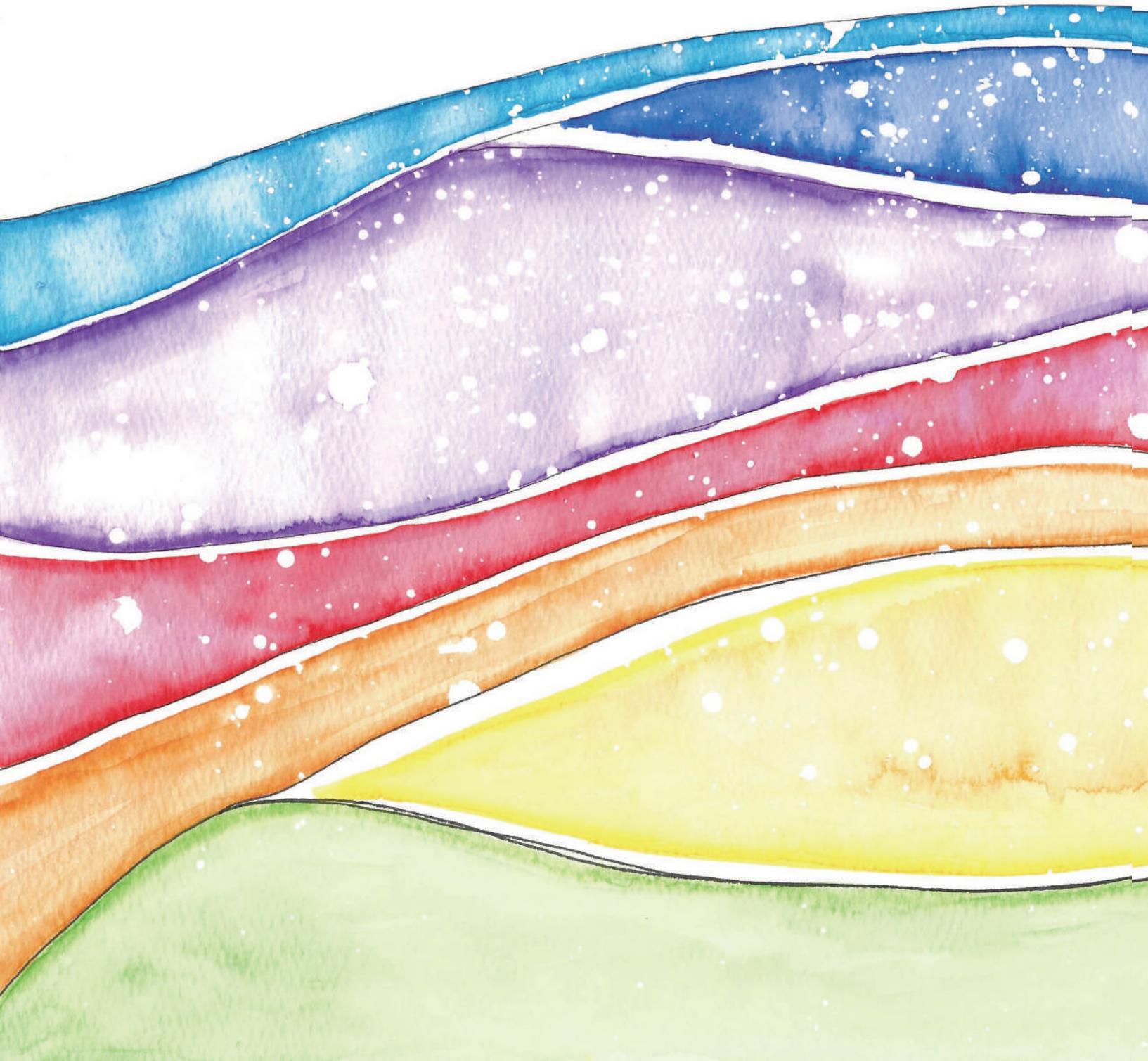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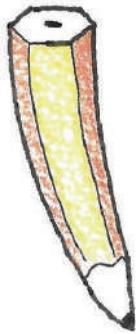
색연필도



The image shows a vibrant rainbow composed of several thick, curved bands of pastel crayon. The colors transition from blue at the top to red, orange, yellow, and green at the bottom. The crayon texture is visible, and small white wax splatters are scattered across the surface. The rainbow is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green grassy field.

파스텔도

예쁜 무지개를 그릴 수 있어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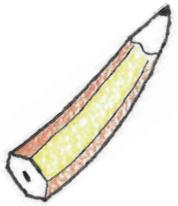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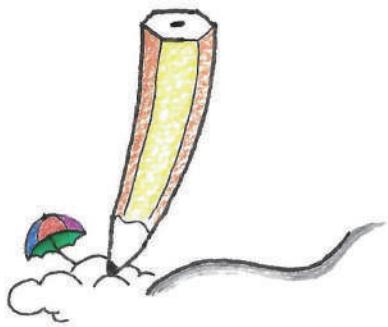
리

는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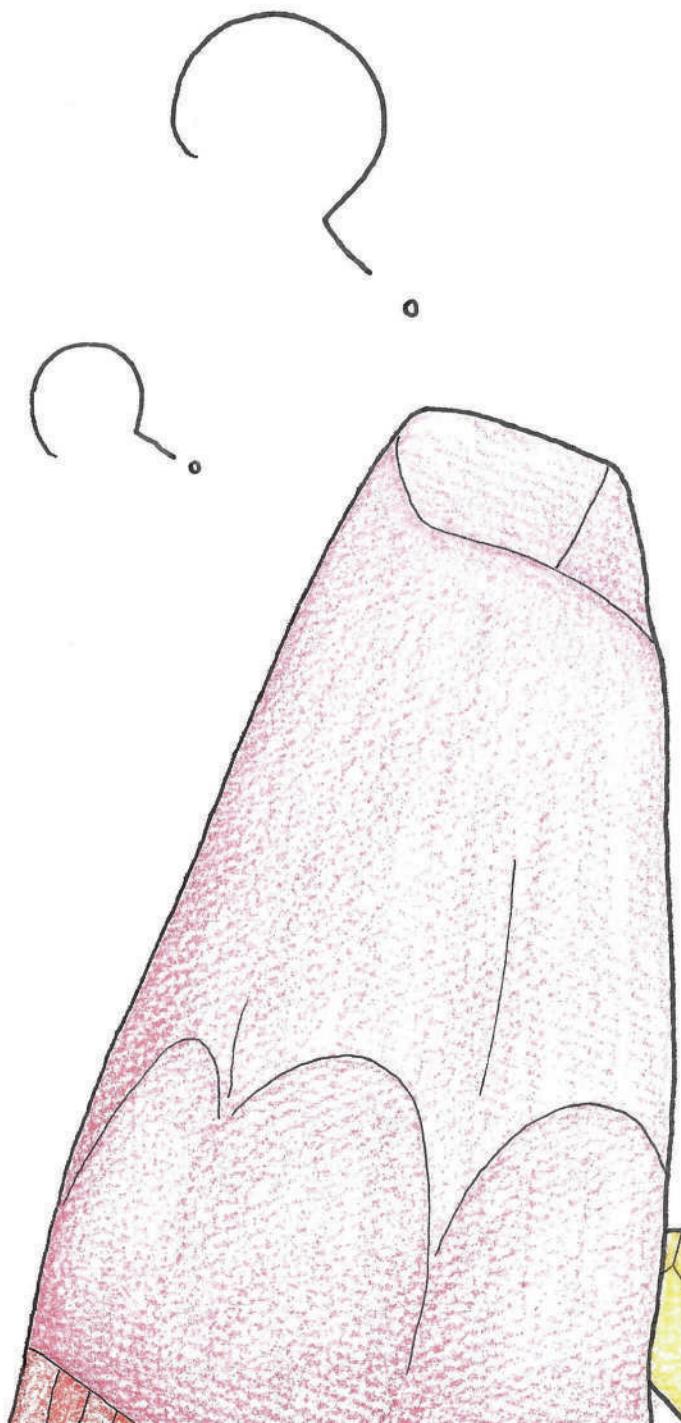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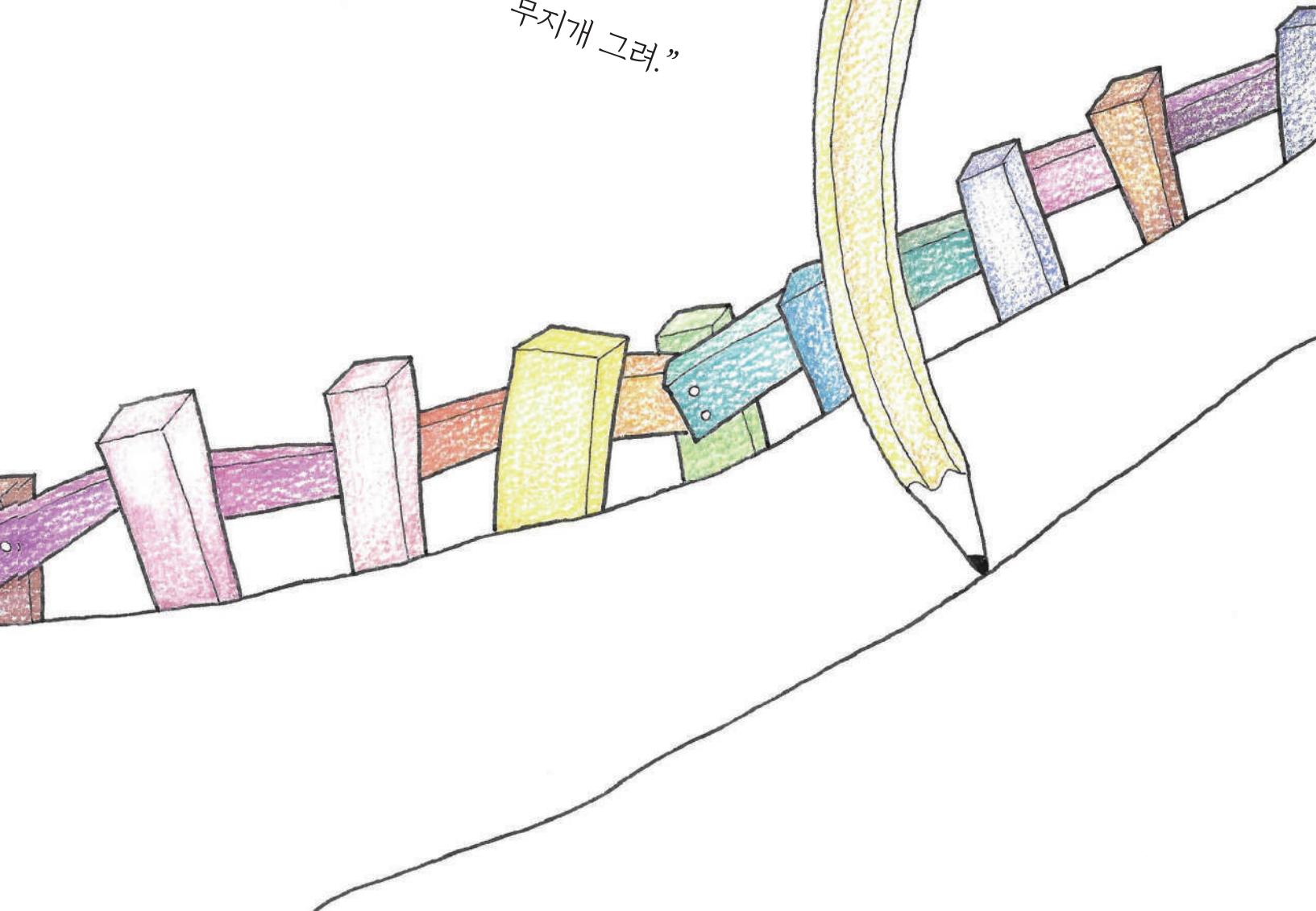
작은
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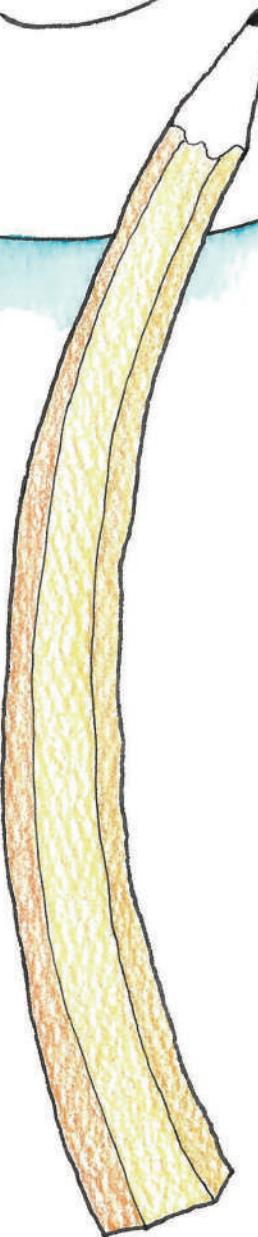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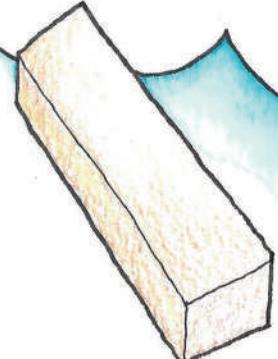
“연필아!
너, 뭐해?”

“으!
무지개 그려.”





“그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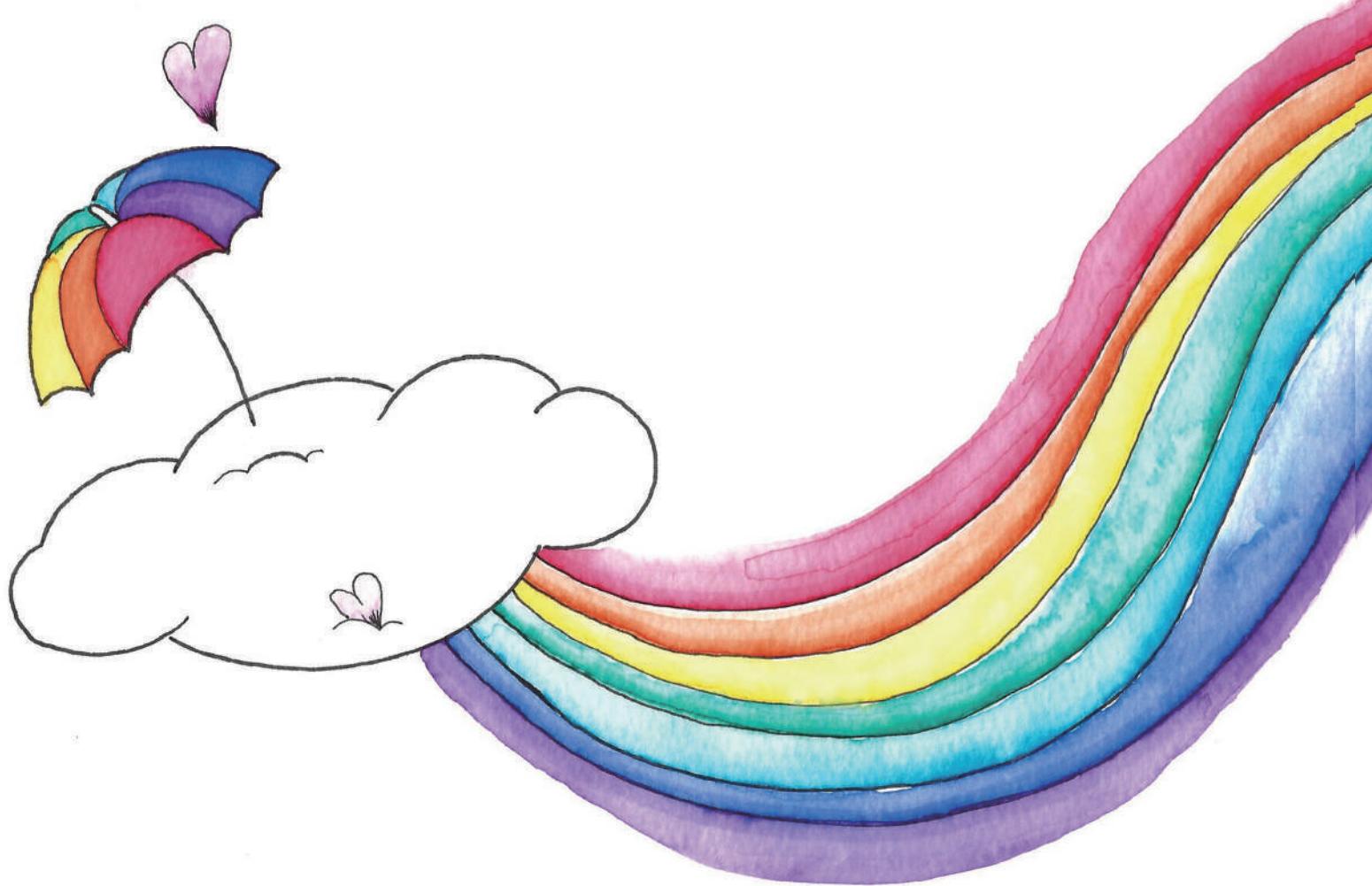


“색이 없는데
무지개라고?”



“난 색이 없어도
그릴 수 있어.”





“내 눈에는 멋져.

이거면 충분해!”

